

예수를 우리 왕으로 - 사사기

사사기 17:6, 히브리서 11:24-40

장윤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 앞에 겸손히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탁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가 복음 안에서 완쾌하게 해결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여덟 가지 미션이 실현되는 응답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바로 나의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론 : 사사기 개론

오늘은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서론에서는 사사기에 대한 개론을 말씀드리겠다.

(1) 우선 사사기의 이름이다. 우리 랍넛들이, “엄마, 아빠, 사사기가 무슨 뜻이야?”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그 책 제목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사사라는 것은 한자로 선비 사, 스승 사 자를 조합한 단어다.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왔다. 한국어에서는 사사라는 말이 없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과거 조선시대에 있었던 직책을 인용해서 ‘판관기’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다. 그런데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재판하는 내용이 별로 없다. 모세는 재판하는 내용이 몇 번 나오지만, 사사기에서는 전쟁하고, 정복하고, 사사들이 잘못하고 하는 내용이 많고, 드보라의 재판 외에는 재판 사건이 나오지 않는다. 원어도 살펴보면, 재판관이라는 의미보다 지도자라는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좀 어색하더라도 ‘지도자기’라고 하는 게 더 맞다. 여기까지 보니까 떠오른 것이 북쪽의 지도자 동지다. (웃음) 그것과 똑같다.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반장 아닌 다른 친구가 지도자가 되었다. 안 좋은 짱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짜증이 났다. 싸우고 싶은데 싸우면 얻어 터질 것 같고 (웃음) 기분이 나빴다. 나는 율법적이었는데, 이 아이는 온갖 나쁜 짓을 했다. 입만 열면 욕을 하고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하나씩, 그 아이 보기가 싫어서 학교 가는 게 짜증날 지경이었다. 그런데 응답을 받았다. 그 아이가 전학을 간 것이다. (웃음) 그런데 두 번째 짱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더 심하게 하는 것이다. 전학한 친구가 그리워질 지경이었다. 사자가 없는 동네에 여우가 왕이라더니, 싸움도 별로 못 하면서 그렇게 날뛰었다. 우리 반 친구 중에 말을 더듬는 아이가 있었다. 내가 원래 마음이 착해서, (웃음) 그 아이와 친하게 지냈는데, 그 녀석이 내 친구를 때리는 것이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왜 친구를 저렇게 괴롭히나.’ 그런데 나중에 응답이 왔다. 그 친구보다 그 녀석이 더 더듬게 되었다. (웃음) 그러니까 나쁜 것은 따라하지 마라. 벌받는다. (웃음) 속으로는 고소하지만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 ‘저 친구도 저러지 않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다.

무슨 말인가? 재판 사사, 지도자가 나온다. 그게 반에도 있고, 동네에도 있다. 양친 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가만히 봤더니, 그 동네의 사사였던 것 같다. 그 동네의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셨다. 교회에서도 안 세웠는데 사사가 나오셨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사사 되시기를 축원한다. 이끌어갈 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나는 의문점이, 나쁜 일을 하려고 하면 잘 못치는데, 선한 일, 좋은 일을 하자 하면 잘 안 못치는 것 같다. 그만큼 세상이 악한 것 같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세상을 치유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 되시기를 축원한다. 설교는 끝났다. (웃음) 여러분이 선한 사사가 되라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이 다 잘못된 사사들이었다. 영적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였다. 지금 많은 정치 지도자가 있고, 많은 경영자, 사업가가 있는데, 경제 분야에서 선한 사사, 지도자가 나오야 한다. 정치에서도 선한 사사, 좋은 선동꾼이 나와야 한다. 회회를 부흥시키고 지역교회를 세우는 선한 사사가 나와야 한다. 그런 중직자, 랍넛트가 나와야 한다. 여러분이 그런 사사, 그런 지도자, 전문분야 리더가 되시기를 축원한다. 랍넛트들이 세상 문화에 끌려가지 마라. 세상이 욕 한다고 같이 욕 하고, 세상이 타락한다고 같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나쁜 것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나쁜 것을 따라가면 안 되지 않나. 그것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현장에서 정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사사가 되시기를 축원한다.

(2) 저자는 사무엘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3) 사사들이 통치한 기간은 여호수아 때부터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의 시대까지다. 사무엘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했다. 위대한 랍넛트 출신의 인물이었다. 그래서 사무엘까지 짧게는 250년, 길게는 400년이 사사들의 통치 기간이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350년 정도라고 본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사기를 읽어 보면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는 평화가 없던 시대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왕이 되면 더 좋아지겠구나 싶지만, 인간이 왕이 된 후에 훨씬 문제가 많았고, 평화의 시대가 훨씬 짧았다. 사사시대 350년 중 속국이 되거나 전쟁이 나거나 문제가 되었던 기간은 103년, 외우기 쉽게 100년이고, 평화의 시대가 250년이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한 시대에 평화가 훨씬 많았다. 우리나라도 평화시대가 그렇게 길지 않았다. 아브람 세대에 전쟁이 일어났다. 35년 동안 속국이 되었다. 구한말에는 강대국에게 시달렸다.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가 그리 길지 않다. 우리 주권을 가지고 평화롭게 사는 시대가 길지 않다.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다. 많은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시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우뚝 서는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절반은 평화가 아니

다. 아담적으로 노예 속국인 곳이 북한이다. 그렇게 봤을 때, 25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평화로운 시대가 얼마나 되나. 여러분이 행복한 시간이 60%쯤 된다면 굉장히 행복한 생애라고 보면 된다. 평화시대, 원어로 ‘살롬’의 시대라는 말이 구약성경에 여섯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 네 번이 사사기에 나온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지도자에 의해서 통치되는 기간이 우리에게 훨씬 평화로운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평화의 사사, 사사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그런 대통령, 정치인, 경제인과 함께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인물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축원한다. 사사들이 잘못이 많았다. 정치적,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된 일을 많이 한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하게 해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그분들이 잘못을 많이 한다. 유익보다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영적 지도자가 많다. 그런 정치인, 그런 사사, 그런 국회 의원, 그런 경제인이 얼마나 많나. 그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한다.

(4)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총 열두 명이다. 그 중에서 대사가 여섯 명으로, 옷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삽손이고, 소사사가 여섯 명으로, 삼갈, 돌라, 아벨, 입산, 엘론, 압돈이다. 우리가 존경하는 기드온의 아들이 있는데, 사사가 아니라 굉장히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이다. 사사의 역할을 했지만 사사에 들어가지 않는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악행을 자행했다. 형제 70명을 다 죽일 정도였다. 그래서 사사의 반열에 넣지 않는다.

(5) 사사기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기록 연대가 3천 년 전이라는 것이다.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은가? 그 시대는 어느 지역이든, 어느 국가든지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다반사였다. 종교도 다양했다. 문화, 정치, 모든 것이 정착되지 않았던 불안한 시대였다. 계속 뺏고 빼앗는 정복전쟁이 일어나는 시대였다. 이것을 알고 사사기를 읽어야 이해가 되지, 오늘날의 관점으로 사사기를 보면 계속 전쟁하고 죽이고 하나씩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시대 배경을 알고 봐야 한다.

1. 사사들의 이야기

(1) 사사기를 보면 영어로 4s라고 한다. 죄(sin), 징벌(slavery :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됨), 회개(supplication), 구원(salvation)의 네 단어가 여덟 차례에 걸쳐서 반복된다. 이스라엘이 잘못하니가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이스라엘이 잘못 했다고 회개하니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신다. 평화로우면 또 타락하고 죄를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때리신다. 이렇게 해서 반복하는 것이 여덟 번이다. 8자를 생각해 보라. 이것은 옆으로 늘리면 무한대(∞) 아닌가? 우리는 계속 잘못을 저지른다.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 또 기도하고 회개한다. 그러면 또 치유하시고 축복하신다. 또 타락하고 그러는데, 회개를 빨리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심하게 맞는다. (웃음)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해서 미안한데, (웃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실력 있고 능력있는 분이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서 엄청 세계 때리셨다. 한 번은 15일 간 금식하셨는데, 살 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원 무 미워하는 원수가 있었다. 복수하고 싶은데 화를 참으려고 15일 금식을 하셨다. 원수 갖고있고 했는데 꿈을 꿴다고 한다. 같이 있는데, 그 칼을 아버지나 어머니가 차고 있었고 있다고 한다. 그 칼을 뽑아가고, 앞에 있는 시커먼 것을 쪼개려고 했더니, 뒤에서 미국식 도끼가 나와서 그 등을 쳤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칼을 내려놓았다고 한다. 꿈을 깨서 15일 금식에 들어가셨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는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였다. 문제는 그분이 아니었다. 우리 아버지가 가진 교만함이었다. 예배드릴 때 모든 목사님을 판단하셨다. 나는 어릴 때 다 지켜 봤다. 아버지는 가장 의로우셨다. 그래서 순복음교회든, 영락교회든,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판단하시고 비판하셨다. 목사님 설교를 비판했다. 영락교회에 갔는데 파이프오르간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교회를 안 가셨다. 피아노도 오르간도 있는데 왜 파이프오르간을 사느냐 하는 것이다. 음악적 상식이 없어서 그렇다. 교회가 넓으면 오르간도 소리가 커버되지 않는다. 교회가 부흥되니까 아예 소 없이 교체해야 하는 것인데, 음악적이 전혀 없는 아버지는 이해를 못 했다. 이렇게 훌륭하셨다. (웃음) 그러나 나중에는 너무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다. 승승장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가셨지만, 값으로 살 수 없는 훌륭한 장로님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축복은 후대와 후대의 후대에게까지 영원히 미치게 된다. 여러분, 빼앗기셨는가? 아픔을 당하고 계신가? 부족했거나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나? 약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가?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 음성을 들어라. 계속 반복해서 이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지금은, 조금만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도 바로 회개한다. 그래도 잘 안 된다. 내 체질이 약한 것이다. 부족함과 악습이 있다. 나의 기준이 있다. 이게 안 바뀌니까 자주 실수를 한다.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나의 기준을 갱다. 성령인도를 따라가려고 기도한다.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2) 사사들을 보면, 훌륭하지 않다. 나는 사사들을 보면서, 한국의 영적 지도자들이 훌륭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답을 얻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대단한 일을 했지만 훌륭하지 않았다. 삽손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지만 너무 큰 실수를 연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성경을 보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들의 명단에 삽손이 들어가 있다. 삽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실인이 되었는데, 나실인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렇지만 삽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골라서 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 명단에 올라갔을까? 나중에 눈이 뻗었다. 끌려갔다. 노예처럼, 짐승처럼 땀을 갈았다. 생각해 보라. 말씀을 어겨서 눈이 뻗었다. 저주인가 축복인가? 나는 축복이라고 본다. 더 큰 축복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죽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 많은 잘못을 했지

만,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셨을 것이다. 여러분, 꼭 눈이 뿔혀야 되겠는가. (웃음) 작은 꾸지람 속에서도 크게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끝까지 쓰임받게 하시지 않는가. 한국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다 부족하다. 인간이니까. 그러나, “은혜를 주옵소서. 이들이 잘못했어도 깨닫게 하옵소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고집은 세지만 드보라 같은 사람이라고 본다. 오죽 남자들이 부족했으면 그렇게 세웠겠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정말 좋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시대시대마다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다. 다음 대통령은 더 멋진 사람이 나오도록, 그런 토양이 이번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부족하다더라도 비판만 하지 말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한다. 영적 지도자가 더 중요하다. 정말 믿음의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한다. 여중 안 되니까 새로운 탭넛트, 어린 사사를 뽑았다. 그 인물이 사무엘이다. 지도자를 뽑았다. 그게 다윗이다. 어른들이 안 되니까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개혁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까지 인도하셨다. 성경이 진실인 증거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지 않나?

(3) 성경에 많은 사사가 있는데 다 설명할 시간은 없다. 여러분이 충분히 읽어 보시기 바란다. 대표적인 몇 명만 보자. 웃나엘은 구산 리사디압과 싸워서 승리하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다. 웃나엘은 전쟁에 승리해서 땅을 받았는데 사막이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않나? 그래서 새로 땅을 받았는데 윗편과 아랫편이다. 우리가 사막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다. 생수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막같은 현장도 옥토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사막이었다. 지금은 어떤가? 농업 기술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었다. 새마을 운동도 다 이스라엘에서 배워 온 것이다. 그런데 매년 팀을 보내는데, 농업 기술이 매년 엄청나게 발전한다는 것이다. 강원도보다 더 좋은 땅 아닌가? 우리는 식량 자급률이 부족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땅에서 훨씬 많은 농업 수익을 얻고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냥 주신 게 아니다. 노력해서 그 땅을 만들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땅이다. 어떤 선교사님과 대화를 해 봤는데, 대한민국이 너무 아름답다고 느꼈다고 한다. 나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하셨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북한 안에 석유 매장량이 세계 3위라고 한다.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설렸다. 갑자기 기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 통일되게 하옵소서.” (웃음) 어떤 분은 그게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은 자원과 희귀광물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 우리의 기도가 화평정정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이 사사가 되는 것이다. 그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축원한다.

예후, 삼갈, 드보라, 기드온이 있다. 기드온은 300용사로 전쟁에 승리했다.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나 기드온의 잘못이 있다. 자녀를 70명이나 낳았는데 그 중에 문제 있는 아들이 있었다. 지도자들이 적당하게 감사하면 되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면 문제가 생긴다. 아비뻔해이라는 아들이 엄청난 악행을 저지른다. 그 후에 돌라, 야일, 압다, 입산, 엘본, 압돈, 그리고 삼손과 사무엘이 있다. 그 사이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다. 거의 동시대의 인물들이다.

2. 사사기의 영적인 교훈과 복음적인 적용,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

(1)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이다.

①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다. 나중에는 쫓아내지 않았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신을 섬겼다. 10:6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들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지금은 그렇게 많은 신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 신이 있을 수 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명예, 돈, 나의 즐거움, 스포츠, 오락, TV, 영화, 스마트폰, 술 같은 것들이 영혼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나. 나의 자유, 관광, 여행이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세계무역센터협회의 부회장이 있는데, 이분이 간증하시는 것을 들어 보았다. 이분은 영국에서 유럽 왕들의 모임에 초청을 받았는데, ‘미안하다. 너무 중요한 분을 만나게 되어서 못 가겠다’ 하고 약속을 포기했다. 이분들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보다’ 하고 보내주었는데, 사실은 예배드러러 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우리 탭넛트들이 이런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내 대학 등록금을 다 대어주시 박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시무하는 교회에 내가 일 년을 다녔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비롯한 공예배에 빠진 적이 없으시다. 이분에게 일전에 파키스탄의 장관을 만나도록 연락을 해서 선교비를 좀 드리라고 했더니 만나서 몇 백 만 원을 주셨다. 그런데 비서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 장관을 만나는 태에도 10분, 15분 정도 시간을 못 낸다고 했다. 한 나라의 장관을 만나는데 그 정도 시간밖에 못 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보셨다. ‘저분이 저렇게 바쁜데도 모든 예배를 다 지키신다. 정말로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구나.’ 아들 둘이 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항상 정치기도하시고. 이 시대에 이런 중직자, 이런 후대, 이런 인물이 나왔을 때 세계는 달라지고 한국도 달라지게 될 것을 믿는다. 여러분, 우상을 안 섬긴다고 우상이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② 그래서 세상 왕을 요구했다. 13:22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인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스스로 노예근성에 빠졌다. 전쟁에 이겼다고 왕이 되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이끌림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 이름을 받아야 한다. 내가 목포 출신인데, 김대중 선생님 말만 나오면 콧속 죽는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었으면 대역사 일으켰을 텐데. (웃음) 김대중 선생님이 목포를

발전시켜준 것이 하나도 없다. 인구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23만 명이다. 정치적인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인간을 왕으로 삼지 마라. 인간을 나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왕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한다. 어떤 분은 남편을 너무 좋아해서 남편을 왕으로 삼고 어떤 분은 부인을 너무 사랑해서 부인을 왕으로 삼고, 어떤 분은 자녀를 왕으로 삼는다. 너무 사랑해서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③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다. 17:6-7에도, 17:25에도,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④ 또 사사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던 것, 쫓아내지 않는 것이 있다.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쫓아내지 않은 것이었다. 담배 피는 것은 쫓아내지 못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도박, 알콜 중독은 쫓아내지 못하는 것인가, 쫓아내지 않는 것인가? 내가 금요일마다 이발하러 가는 곳에 때밀이가 있다. 조선족 청년인데, 이 친구가 수요일마다 경마를 가는 것이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다가 안 들으니까 다시 충고했다. “가기는 가되, 가서 즐겨라. 5만 원, 10만 원 이하로 해서, 타향 같은 한국 땅에 와서 때밀이를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다. 그렇게 해야지, 도박 같은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즐길 수가 있어요?” 수백, 수천만 원을 잃었는데, 본전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경마를 하면서 즐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번에 끊어 버리고 저축하라는 거다. 돈을 우상으로 하지 말고, 다음 주에 와서 체크할거다.” 여러분, 알콜 중독이, 쫓아내지 못하는 것인가, 안 쫓아내는 것인가? 얼마든지 끊은 분이 있다. 정말 내 마음 속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쫓아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그게 있다. ‘저걸 쫓아내면 재미없는 인생이 될 텐데’ 이런 게 있는 것이다. 최목사님이 말씀 하셨는지 않나. 즐거운 게 뭐가 있느냐고. 죄 안 지으면 즐거운 게 없다는 것이다. 죄 짓고 나쁜 일을 하면, 그게 입에는 달다. 그러나 결국 독이 되어 죽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 나실인의 길을 걸으며 나쁜 것을 끊는 것은, 사실은 너무 자유롭고 행복하고 즐겁다. 그런 사사와 나실인의 응답을 받기를 축원한다. 쫓아내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⑤ 이 세상은 마치 가나안 현장과 같다.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해야 했다. 악한 적들과 이방 문화가 계속 있다. 이 세상은 훌륭한 지도자도 없다. 힘이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을 착취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바르게 못 하고 있다.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타락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전도의 길을 막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보지 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기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사를 믿지 마라.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지도자로 섬길 때, 오히려 어린 사무엘이, 어린 다윗이 민족을 구한 것처럼, 비판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로 사사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한다.

(2) 사사들의 잘못을 보라. 기드온이 70명의 자녀를 두고 왕들처럼 군림했다. 삼손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다. 여자에, 술에, 도박에 빠지고 내기한다고 수수께끼를 냈다가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나실인의 천명을 잊어버리고, 예배도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다. 사사시대에는 유월절을 잊어버렸다. 예배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도 성막도 법제도도 잃어버린 시대다. 지도자는 있는데 참된 복음이 없었던 것이다. 영적 지도자는 있는데 참된 복음, 참된 성정이 없다. 그런 시대였다.

결론 : 사사기 속의 실천 미션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천 미션이 무엇일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라는 것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겨야 한다. 우리 가정, 우리 나라와 민족의 왕으로 섬겨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읽고 듣고 행해야 한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읽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왜 성도들이 예배를 안 드릴까’ 싶을 때가 많다. 한 마디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셋째,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천명을 받은 사사가 되어야 한다. 따라해 보자. “나는 사사다.” 여러 분이 가정의 사사가 되셔야 한다. 가정의 선지자, 제사장, 사사가 되어야 한다. 학교, 직장, 지역의 사사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잘못된 사사가 아니라 참된 사사다. 넷째, 나실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소명, 예수 제자로서의 사명, 현장 사사로서의 천명을 감당하는 나실인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 구호를 외치고 마지막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했으면 좋겠다. “나는 생명 살릴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현정의 지도자다. 나는 민족 살릴 사사다. 나는 세계를 살릴 나실인이다.” 이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불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사사로, 참된 나실인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되어드리는 응답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교회와 성도들이 대표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리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